



#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금속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금속분회  
24.09.11  
교섭  
속보  
VOL.24

발행 : 정진용 | 발행일 : 2024.09.11.(수)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 2024년 단체교섭 모든 사업장 마무리 일진베어링지회 총회 가결

**사무직 노동자분들! 사측의 강압적 업무지시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금속노조 가입을 권유 드립니다.**

일진베어링지회 총회 부결 후 진행된 24차 지부집단교섭이 일진베어링 교육장에서 09시부터 약 20분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일진베어링 사측은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사무직 현장 투입을 중단하겠다. 사무직들에게는 성과급도 지급안한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파업기간) 생산현장 투입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감수하며 물량확보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오늘부터 라인가동을 전면 중단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회사도 책임있지만 지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지회장은 “사측이 조합도 책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번이라도 조합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진정성있게 생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차분한 어조로 책임을 추궁했다.

파업 시 사무직의 생산현장 투입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일진베어링에서만 일어난 현상도 아니다. 사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강압적 지시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포괄임금제 또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노사합의한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지급 시에는 엄청난 생색내기를 해 낸다. 사무직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측의 막무가내식 업무지시와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사내 사무직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다.

오늘 일진베어링 사측이 사무직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물량 납품에 개의치 않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니 그 태도가 씁쓸하고 그간의 일진베어링 노-사 관계가 어떠했을지 짐작된다. 교섭에서 일진베어링 사측은 어제 제시안에 상품권 20만원을 추가해서 제시 하였다.

교섭종료 후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는 53.7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일진베어링 사측 제시안
기본급	400원 (호봉승급 별도)
일시/성과급	1,350만원 + <b>상품권 20만원</b>
지급시기	유급휴일 : 6일 지급시기 : 임금인상 소급분 10/8 타결일시금 : 9/12 600만원, 10/8 500만원, 11/8 250만원, 상품권 20만원

## 교섭의 생산성, 효율성 망가뜨린 사용자 측의 각성 필요

2023년 지부집단교섭은 9월 7일, 23차로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이 기간을 축소하고자 보충교섭 시간을 충분히 제시하고 단체행동 돌입 시점도 신중히 결정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 횟수와 기간이 늘어났다. 사용자측이 늘 주장하던 효율적, 생산적 교섭은 노조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측의 태도가 몹시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교섭이었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복되는 부결은 어떤 의미인지 사용자 측의 각성이 필요하다.

